

현대 건축공간에서 나타나는 비(非)가시적 힘의 형상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iguration of invisible force in Contemporary Architecture-space

이형근* / Lee, Hyoung-Geun
김개천** / Kim, Kai-Chun

Abstract

The modern society of the 21st century is becoming a discussion as spaces appearing as ambiguous boundaries caused by complexed cultural phenomenon. As for the spacial factors we recognize, which appears as phenomenon in which is emphasizing the existing system of cognizance and thinking through drawing inviable parts of the effort within escaping the limits of gravity. This Merleau-Ponty and Gilles Deleuze refines it as theories called "Perception" and "Sense", and through the 'visible and invisible' of Merleau-Ponty and the 'Nonsense and paradox' of Gilles Deleuze, this study object is forming these inviable representations into space. Using the similarities of these two theories as a tool, we will analyze the examples of space with drawing the force that forms invisibility into embodiment, building a possibility of improvement in future spaces.

키워드 : 비가시성, 무의미, 역설, 비생성, 표현

Keywords : Invisible, Nonsense, Paradox, Non-Formation, Expression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현대사회에서 대두되는 혼성적(Hybrid)문화현상은 예술분야 뿐만 아니라 건축공간에서도 다양한 입장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실험적인 건축공간에서 나타나는 신기술의 적용은 형이상학적인 건축형태 및 공간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표현들은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시도로 새로운 건축공간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동반한 가시적 표현으로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한 공간, 즉 종래의 사고와 체계인식을 초월한 자유로운 체계 속에서의 건축공간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고도의 테크놀러지의 표현에 힘입어 탈정형의 형태와 예측 불가능한 비가시적인 건축공간에서는 인식의 범위를 규정할 수 없게 되었다.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공간의 창출은 기존의 정적인 형태를 초월한 비가시적인 형식으로 나타나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공존으로 작가의 이성적 의지에 의한 개념을 넘어서 예상하지 못한 우연한 건축공간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메를로-퐁티의 저서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과 들뢰즈의 '무의미와 역설'은 시각과 감각의 문제를 다루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일상적 시각을 뛰어넘고, 비가시적인

것의 깊은 이면에는 가시적인 것이 자리 잡고 있음과 동시에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것은 건축공간의 이론과 형식에 대한 이상적인 개념에 비견될 수 있으며 시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초월적 주제들을 설명하는데 메를로-퐁티의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이론과 들뢰즈의 '무의미와 역설'은 무한한 발전가능성과 환상적 공간을 표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방법론으로 파악된다. 비가시적 특성은 건축공간뿐만 아니라 예술, 사회 문화 전반에 두루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의 건축, 공간 현상으로서의 모호하고 다중적인 '비가시적' 특성을 살펴보고 비가시적 힘의 형상화가 어떻게 작용하여 발생하는지 대한 이해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과 학회에서 언급하고 있는 '비가시성'을 조사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문헌 자료의 수집에는 비가시적특성과 그에 의한 철학적 사유를 조사하고, 특히 메를로-퐁티의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이론과 들뢰즈의 '무의미와 역설'의 이론을 연구하여 두 철학자의 공통분모인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특성과 형상화에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2장에서는 '비가시성'의 개념을 알아본 후 메를로-퐁티와 들뢰즈의 비가시적특성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통해 비가시적 힘의 형상화에 대한 의미를 알아본다. 3장에서 비가시적 힘의 형상화를 위한 표현방법에 대해 알아본 후 사례를 통해 정리한다. 4장에서

* 정회원,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스페이스건축디자인학과 실내디자인전공 석사과정

** 정회원, 국민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부교수

는 3장에서 언급한 비가시적 힘의 표현방법의 사례 분석을 기준으로 비가시적 힘의 형상화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본 연구를 진행한다.

2. '비(非)가시성'에 대한 일반적 고찰

2.1. '비(非)가시성'의 일반적 정의

눈은 매일 대상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들은 우리 시야에 들어와 인지하게 된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만물은 외면을 가지고 있고 내면 또한 함께 가지고 있다. 더 크게 확대해보면 가시적영역과 비가시적인 영역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과학적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가시적 세계는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체가 존재하는 물질의 세계를 말하고 비가시적 세계는 눈으로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한 크기의 물질세계를 말하거나 모든 물질의 근본이 된 세계인 원자의 세계를 말한다. 비가시적인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정신적 세계가 근원적이며, 즉 “빛은 정신의 눈에 육체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고 볼 수 있게 해 준다”¹⁾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Platon: BC428~BC347)은 보이는 물질적 존재보다 보이지 않는 정신적 존재가 근원적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긍정한 최초의 인물이다. 그에 의하면 이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세계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비가시적인 세계인 이데아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즉, 가시적인 변화의 세계인 현상계와 가지(可知)적인 불변의 세계인 이데아계로 나뉜다. 이처럼 가시적 세계는 비가시적 세계인 영의 세계의 모형과 그림자이며, 영의 세계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서 사람이 보이는 세계에서 행한 행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이로 인한 파장이 또 다시 보이는 세계에 속해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 두 세계는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상호간에 영향을 받고 있다.²⁾ 비가시적 세계는 가시적인 물질의 본질 세계이므로 가시적 세계는 비가시적 세계에 의해 다스려지며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비가시적 세계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무엇이라 지칭하기 어려우며, 신비롭고 미지한 영역이다.

이것이 비가시적특성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속성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시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인하려면 '비가시적인 것'들을 확인해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이다. 주로 현실에서 다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욕구가 충족될 때, 그리고 그 경험이 오감을 자극하여 상상력이 발휘될 때, 그 상상력이 만족스러울 때, 보이지 않지만 유희를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을 '비가시성'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2.2. 메를로-퐁티의 '보이는 것(visible)과 보이지 않는 것(invisible)'

메를로-퐁티(Marurice Merleau Ponty, 1908-1961, 프랑스철학자)에게 있어서 '가시적인 것'은 글자 그대로 모든 '보이는 것들'의 외관(apparence) 혹은 현상(現象)과 동의어이다. 이 외관을 가시적으로 만드는 본질을 그는 '사물의 살' 혹은 '비가시성'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살' 개념은 보는 자가 보이는 것을 대신하여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기묘한 사태를 중시함으로써 조성된다. 일종의 봄의 나르시즘이라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내가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이 나를 이용해서 자신을 본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존재 영역으로 볼 때, 보는 자가 보이는 것들, 즉 가시적인 것들의 영역으로 이미 편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보는 자가 곧 보이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 곧 보는 자라는 봄과 보임의 상호환위(相互換位)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시성의 신비를 가능케 하는 존재론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 곧 '살'³⁾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메를로-퐁티에게 있어서 '가시적인 것'(visible)과 '비가시적인 것'(invisible)은 하이데거의 '존재자'와 '존재'에 그대로 대응한다. 말하자면 '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일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비가시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지각되는 어떤 사물도 지각되는 그것만으로 완결되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뒤에, 넘어서, 그리고 멀리 등과 같은 초월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2.3. 질 들뢰즈의 무의미(non-sense)와 역설(paradox)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대비들 중 하나가 의미가 있다/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들뢰즈에게는 무의미란 없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의미가 있으며, 이들에게 의미는 일상생활에서 의미가 있다/없다고 나누기 이전의 차원이다. 가령, $x^2 - 1 = 0$ 이라는 구조가 있을 때, 세상에는 일정한 조건($x > 0$)이 주어져 있고, 그때 문에 1만이 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1이 의미이고 -1은 무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들뢰즈가 탐구하는 층위는 1과 -1이 공존하는 차원이다. 즉, 특정한 방향(sens)이 아니라 양 방향이 동시에 긍정되는 층위가 그것이며, 이 층위가 '무의미(non-sense)'이다. 그래서 들뢰즈에게 무의미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미가 많은 것⁴⁾이

1) 르네위그, 김화영 역, 예술과 영혼, 열화당, 1981, p.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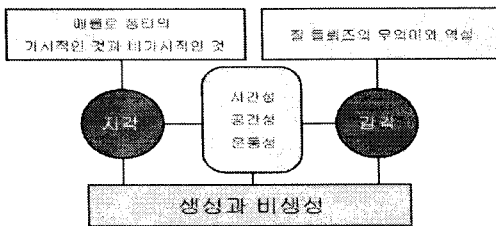
2) 박해리, 비가시적으로 존재하는 빛과 공기의 형상화, 이화여자대학교, 석론, 2004, p.6

3) <살>은 육화된 실존으로서 몸자체의 존재 방식을 말해주는 것이고, 정신도 아니며 물질도 아니며, 실체도 아니다. 세계 또한 감각적인 것들로 이루어진 살로 구성되어 있다. 메를로-퐁티는 <살>을 흙, 불, 물, 바람과 같이 이 세계에 있는 자연'원소'로서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 공간적 개체와 관념 사이의 중간자이며 존재의 파편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라도 존재의 양식을 부여해주는 일종의 육화의 원리이다. 김홍수,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으로 조명한 1980년대 이후의 새로운 건축 공간 개념에 관한 연구, p.16. 용어 해설 참조.

다.

기호 작용의 역설들은 본질적으로 비정상적인 집합과 전복적인 요소이다. 의미의 역설들은 본질적으로 무한 분할이며 노마드적 배분이다. 즉, 역설은 '통념'(dox)과 대립한다. 다시 말해 통념의 두 측면인 양식(bon sense)과 상식(sense commun)에 대립한다. 역설의 힘은 결코 다른 방향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는 언제나 두 의미/방향을 동시에 취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양식/일방향의 대립물은 다른 방향이 아니다. 다른 방향이란 단지 기분의 전환일 뿐이다.⁵⁾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는 일정한 사건을 계열화하는 평균적인 방식이 존재한다. 존재론적으로는 다양한 방향/의미를 추구하는 사유이고, 인식론적으로는 세계를 구성하는 주체가 아니라 '노마드'로서의 주체를 추구하는 사유이다. 여기서 '역설(paradox)'의 특징은 성립한다. 예를 들어 고갯마루를 아래에서 보면 도달점에 있고, 위에서 보면 출발점에 있는 것처럼, 역설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은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을 동시에 보고 그때그때의 맥락에 따라 각각을 긍정하는 사유이다.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하나의 길만 고집 하는 것이 아니고, 인식론적으로 주체가 하나의 통일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역설(paradox)'은 '무의미(non-sense)'만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을 다 긍정한다.

<표 1> 비가시적 힘의 형성배경



3. 비(非)가시적 힘의 형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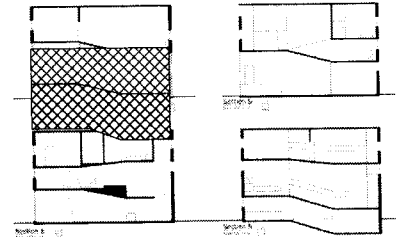
현대 건축공간에서의 비가시적표현은 주로 공간과 형태적 제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시적인 현상과 비가시적인 현상 사이의 중간에서 조율한다. 이 두 경계면 사이에서 일어난 힘(혼성적 작용)으로 인하여 외부와 내부의 본질적 속성이 변화한다. 혼성적 작용은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표현에 있어서 공간이 갖고 있는 시간적·장소적·감각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준다. 보이지 않는 힘은 '구상적인 형상'을 갖는 현실대상에 '비가시적 힘'의 효과를 도입하여 일상적인 관계를 부정함으로써 잠재성의 양방향 세계를 펼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잠재되어있는 상상적 공간을 구현하는데 있어 비가시적 요소를 통해 새로운 공간모형을 제시한다.

3.1. 무의미(non-sense)와 역설(paradox)적 표현

"역설과 무의미"는 들뢰즈가 그의 존재론으로부터 역사 이론으로, 즉 철학적 사유가 보다 현실적인 문제의 영역을 넘어가는 계기를 제공한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예술작품, 특히 건축의 창작을 통해 잠재성의 세계를 드러내고, 그로부터 근원적인 다양성을 새롭게 생성시키는 기법의 탐구에 있어서, "역설과 무의미"의 논리는 더욱 실천적이고 유효한 전략이 될 것이다. 건축에서 구상적인 형상으로 '역설-무의미적인'효과를 도입하여, 재현적 관계를 붕괴시키고 잠재성을 펼치는 기법의 사례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MVRDV의 'Double House'다.



<그림 1> MVRDV, Double House, Utrecht, The Netherlands, 1995-97



<그림 2> Double House, section

<그림 1, 4> 이 주택은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근대건축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개별공간의 구성형식과 개인주택으로서 가지는 사생활(Privacy) 측면에서는 기존방식을 철저히 탈피하면서 '역설-무의미적'인 효과를 도입하고 있다. 먼저, 공간에서는 수평분할 방식을 수직 구분할 방식으로 적용하여 두 개의 주택공간이 지그재그(zigzag)형으로 상호 관입된 역설적인 형상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될 때 한쪽의 주택에서는 가장 외곽의 공간이 다른 쪽에서는 가장 내부적인 공간이 되고, 그 역방향 또한 마찬가지로 구성된다. 그 결과 내부와 외부, 중심과 주변이라는 공간의 위계성은 붕괴되고 동등성을 갖는 공간들의 차이의 의미가 끝없이 지연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공간 구성은 인접한 두 주택 간의 프라이버시 개념을 흐린다.⁶⁾ 전통적인 서구 개인주택의 프라이버시란 은둔과 독립성의 강조에 있는데 반해, 이 주택에서는 지나친 근접과 개방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역설적인 공간구성과 프라이버시 개념의 도입은 이 주택이 갖는 고유한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교란시키고 있다. 그러면서도 두 주택 간의 외형적인 차이는 분명히 인지된다. 다시 말해 차이에 기반 한 의미지연, 즉 차연적인 표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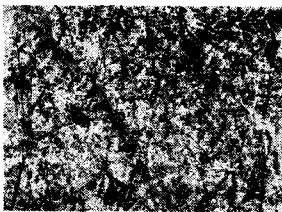
4)이정우, 시뮬라크르의 시대, 도서출판 거름, 2000, p.183.

5)Gilles Deleuze, 의미의 논리, 이정우 옮김, 한길사, 1999, p.158.

6)권태일, '표현적 다양성'으로 본 현대건축, 부산대학교, 석론, 2005, p.150.

3.2. 비(非)생성적 힘의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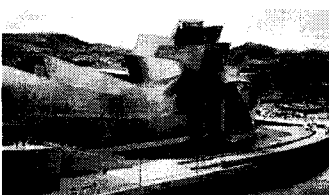
‘비-생성적 표현’은 비일상적인 ‘경계 없는 추상적 형상’을 통해 ‘역설-무의미’의 효과를 표출함으로써 재현의 관계를 부정하고 잠재성을 펼치는 기법이다. 여기서의 ‘경계 없는 추상적 형상’은 흔적의 산종과 같은 것이며, 잠재성은 그러한 형상을 나타내게 하는 배경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의 잠재성을 앞서 본 ‘무의미와 역설’ 차원의 잠재성, 즉 차이/지연 운동의 흔적들인 유(有)계열과의 ‘보충대리(補充代理)’의 관계 속⁷⁾에서 성립되는 ‘힘의 공간’에 연결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힘의 공간에 의한 흔적들은 시각적인 표현을 요구하는 예술작품에서는 앙포르멜 예술⁸⁾처럼 무한한 흔적의 산종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경우 또한 끝없는 생성이 흔적만이 산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무엇이 생성되고 있는가를 답하지 못한다. 즉 차이 자체의 생성이 아니라 그것을 야기하는 바탕적인 힘의 표현인 ‘비-생성적



<그림 3> Jackson pollock
- Lavender Mist-1950

표현’의 차원에 놓여 있는 것이다. 건축에서 ‘역설-무의미’의 효과로 이와 같이 차이/지연의 흔적들과 그 배경인 힘의 공간을 보충대리의 효과로 표현한다고 판단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점에서 우리는 프랭크 게리(Frank Gehry)의 작품세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폴록의 그림에서 보여 지는 차이/지연적인 흔적들의 표현, 즉 그 어느 하나로 차별화 되지 못하는 미결정적 상태를 ‘의도적 미완결성’이라 부르며 자신의 디자인 모티브로 삼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향은 다음의 글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나는 미완성의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잭슨 폴록, 드 쿠닝 그리고 세잔의 그림 속에서 발견되는 그런 질감 같은 것이다.회화 속에는 마치 붓 터치가 금방 이루어진 듯한 우발성이 있다.건축물은 어떻게 하면 그러한 과정중인 듯한 느낌을 보여 줄 수 있을까?”⁹⁾



<그림 4> Frank O. Gehry Guggenheim Museum Bilbao, Spain, 1993-1997



<그림 5> Guggenheim Museum, metal - titanium ref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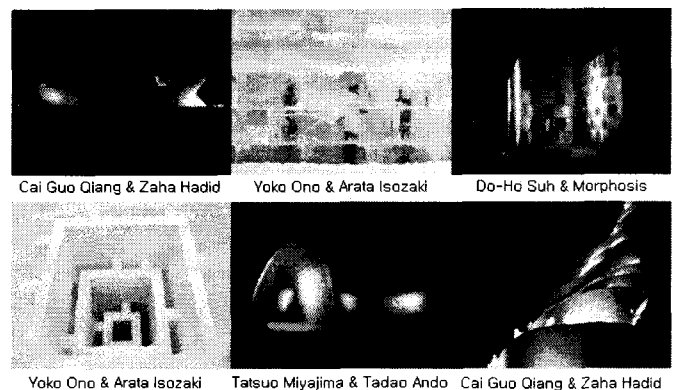
스페인의 빌바오에 세워진 구겐하임 미술관<그림 4, 5>은 이러한 미결정적인 카오스의 선들을 3차원적으로 펼쳐내면서 잠재성의 기저층(基底層)인 무의식의 세계로 이끈다. 이 미술관의 외형을 이루는 선들은 전시, 수장, 휴게와 같은 구체적인 내

부공간의 기능에 대응하지 않으며, 주변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전체적인 형태를 구성하는 선들은 대지지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암시하는 추상적 차원의 혼돈의 선들로 머물고만 있을 뿐이다. 그의 건축이 보여주는 이 같은 비일상적이고 ‘역설-무의미’적인 혼돈의 선들은 차이/지연의 흔적들이 산종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배경에는 보충대리의 효과로 이 표현을 가능케 하는 힘의 공간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비-생성적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3.3. ‘비가시(Invisible)’적 힘의 표현

메를로-퐁티에 의하면 비가시적인 것은 이차적 가시성으로 이것은 가시적인 것에 의해 나타나면서 또한 감춰지는 내적인 틀로서 본질, 의미, 관념을 의미하며, 비가시적인 것은 가시적인 것의 은밀한 상대로서 세계 속에서만 우리에게 현전하는 “표상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존재의 두 가지 양상일 뿐이다.”라고 말한다. 즉 동전의 앞, 뒷면과도 같이 서로 상반되면서도 하나로도 볼 수 있는 개념인 것이다. 이것은 대상을 신비스럽게 통각(痛覺)하는 것이며, 대상의 재현에서 느낄 수 없는 ‘깊이감’에 다가서게 한다.

비가시적인 표현이 가능했던 작품 중 하나는 핀란드에서 유명건축가와 미술가들이 함께 만들었던 작품<그림 6>들이다.



<그림 6> Art and Architectural investigation by creating works, The Snow Show 2004-2005

재료는 이 지역에서 흔히 내리는 눈과 추위에 의한 얼음이다. 예술작가와 건축가의 만남으로 신선한 개념의 아트&건축이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들의 결과는 전시기간인 2004년 3월 중순쯤에는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기다린다. 얼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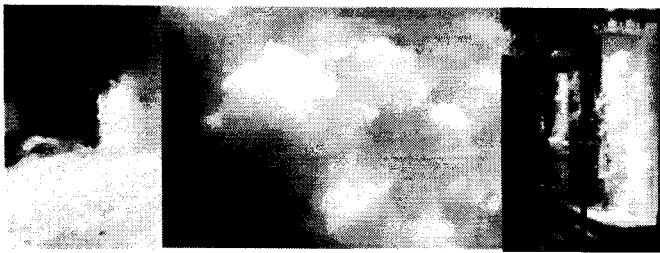
7) 앞의 논문, p.152.

8) 앙포르멜이란 ‘비정형’을 의미하는 말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추상 표현주의의 범주에 들지만 특히 미국의 액션 페인팅에 대응하는 프랑스의 예술 동향을 가리킨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108661>.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9) 천의영, 1980년대 중기 이후 현대건축의 관계성의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론, 1998, p.96.

녹을 수 있는 기온이 되면 이 아트&건축물들은 이완과 수축을 일으켜 서서히 녹게 될 것이고 이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 행사의 책임 큐레이터인 Lang Fung은 “연주회나 훌륭한 퍼포먼스처럼 가시적인 예술(The Visual Art)은, 평생을 박물관에 걸려있는 작품이 되었던 따뜻한 계절에 녹는 작품이 되었던 ‘순식간에 겪는 경험(fleeing experience)’일 것이다.”라고 말한다.¹⁰⁾ 즉, 공간이 사라지는 순간을 비가시적 힘이 발생하는 순간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사례 중 Tokujin Yoshioka의 ‘추억’<그림 7>이란 작품을 보면 55만 개의 투명 빨대로 이루어진 구름¹¹⁾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설치 작품은 도쿄 메종 에르메스(Maison Hermes)의 윈도우 디스플레이를 위해 고안된 작품이다. 빨대 다발을 촘촘히 한데 붙여 구름의 모양을 연상케 한다.







<그림 7> Tokujin Yoshioka- Maison Hermès Window Display 2006

무게가 거의 나가지 않는 가벼운 재료를 사용하여 ‘무정형’의 ‘기체 흐름’이라는 생각을 표현하였다. 빨대를 이용하여 경험을 뛰어넘는 연출로 정지해 있지만 팽창하여 앞으로 나올듯한 힘이 느껴지는 표현이 비가시적 힘의 형상화라 할 수 있겠다. 늘 같은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놓여 있는 작품이지만 어느 순간, 비가시적인 측면이 가시성에 녹아 떠오르는 비가시적 힘을 맞이하는 두근거림을 메를로-퐁티는 예감 했었다.

<표 2> 비(非)가시적 힘의 형상화가 표현된 건축공간의 사례

분석 작품의 건축-공간명	비가시적 힘	형상화	작품 공간	비고
Steven Holl Bellevue Arts Museum, Washington. 2001	무의미·역설 - 실재성 - 실재성 갖는 차이의 생성	‘상호얽힘(공간, 시간, 인간의식이 녹아있는)의 정형성과 비정형성이 뒤섞이면서 새로운 리얼리티를 창조하는 특이한 형상으로’역설과 무의미의 효과를 낸다.		예술 박물관
Daniel Libeskind Jewish Museum in Berlin. 1999	비가시성 - 의미의 깊이 - 임감과 중부 함	건축자체가 베를린 유대인의 존재에 대한 현시(顯示)이며, 이는 내부로도 확장되어 보이지 않는 측면의 유대인의 존재를 ‘부재의 현존’이라는 방법으로 표현.		유대인 박물관
Herzog & De Meuron Dominus Winery, Napa Valley, California, USA. 1996	비생성적 힘 - 구축방식의 역전에 따른 중력의 생성 적 힘.	탈-질서화는 강한 혼돈을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질서와 다른 새로운 질서 부여, 현실의 중위에서는 인식하기 어려웠던 ‘감각의 공간’이 생성됨을 체험을 형상화하였다.		와인 저장고

MVRDV, "Double House", Utrecht, The Netherlands, 1997	무의미·역설 - 자연 - 표현	역설적인 공간구성과 프라이버시 개념의 도입은 고유한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교란시키고 있다. 그러면서도 두 주택간의 외형적인 차이는 분명히 인지되도록 하였다.		주택
Herzog & De Meuron SBB signal tower in Switzerland. 1998	비가시성 - 잠재된 '표현 의 다양성'	중앙통제타워는 밑은 좁고 위는 넓어서 기울어질 듯 위태롭다. 얇은 동판으로 건물 전체를 미이라처럼 칭칭 감았는데, 어두워지면 동판 사이로 뿜어 나오는 빛이 시시각각 색이 변한다.		철도중앙 조정 타워
Brian Strawn, Kara Sierralta dual memory. 2004	비생성적 힘 - 기억 속 이 - 미지를 빛의 - 힘으로 생성	수많은 이들의 삶의 흔적을 의미하는 이 공간에서 물과 빛은 잃어버린 사람들, 생존한 사람들, 그리고 구조, 회복 및 치료를 도왔던 사람들과 관련된 기억을 반영하는 요소로 역설적 연상법으로 표현.		추모 기념관
Tokujin Yoshioka X LEXUS. 2006	비가시성·비 - 생성적 힘 - 중력과 주위 - 공간을 안으 - 로 통합	공간의 비움과 공간의 채움이 함께 현실화 되는 순간을 포착하는 비생성적 힘을 이용한 비가시적 표현		전시장

4. 결론

건축공간에 있어서 ‘비가시적 힘’의 형상화는 감각과 지각의 비가시적 요소를 활용하여 가능성을 제시한다. 메를로-퐁티의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과 들뢰즈의 ‘무의미와 역설’은 이러한 맥락에서 분명히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비가시적 힘의 표현은 기존의 현대건축공간에서 잠재성의 세계를 펼쳐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인간, 자연, 그리고 건축공간의 비변증법적, 비위계적인 관계로 상호침투하면서 기존의 현대건축공간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이 공간으로부터 비가시적 힘의 다양한 표현이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진정한 의미의 다양성을 갖는 현대건축공간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의해 새롭게 인식된 현대공간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공간적인 차원에서 ‘비가시적인 공간’의 창출을 말하는 것이다. 즉, 언어와 ‘봄(vision)’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비가시성을 내포한 공간요소를 도구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비재현적이고, 비개념적이고, 탈위계적인 내밀한 세계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공간(현상을 낳는 본체의 차원에서)으로 비현실적인 공간을 창출하고 어떠한 틀, 개념, 이데올로기에 매개되거나 종속되어 있는 공간이 아닌 비가시적인

10) a+u. 「The Nature of Collaboration: Art and Architecture through Snow and Ice, The Snow Show 2004」, 0406

힘이 형상화된 잠재성의 공간을 말한다.

본 연구는 새로운 현대 건축공간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동시에 미결정의 세계를 향한다는 점에서 한계 또한 안을 수밖에 없다. 비가시적 힘의 표현이 미래의 새로운 공간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으며, 사례로 내세운 기존 건축공간 또한 완전히 부합할 수 없지만 비가시적인 힘은 존재하고 형상화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이 연구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통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안은희·이정옥, 현대 실내공간의 환상적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6.2.
2. 신흥경·옥창수, 현대 실내공간에서의 비물질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3권 3호, 2004. 6.
3. 권영걸, 공간디자인 16강, 도서출판 국제, 2001
4. 모리스 메를로-퐁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남수인·최의영 옮김, 동문선, 2004
5. a+u . 「The Nature of Collaboration: Art and Architecture through Snow and Ice, The Snow Show 2004」
6. 권태일, '표현적 다양성'으로 본 현대건축, 부산대학교, 석론, 2005
7. 천의영, 1980년대 중기 이후 현대건축의 관계성의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론, 1998
8. 이정우, 시뮬라크르의 시대, 도서출판 거름, 2000
9. Gilles Deleuze, 이정우 옮김, 의미의 논리, 한길사, 1999
10. 르네위그, 김화영 역, 예술과 영혼, 열화당, 1981
11. 박해리, 비가시적으로 존재하는 빛과 공기의 형상화, 이화여자대학교, 석론, 2004
12. 이란표, 현대 건축과 회화에서 힘의 자유로운 분산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3권 3호, 2004. 6.
13. 강창훈, 형상 이미지를 통한 생명력의 상징적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석론, 2002
14. 강승연, 메를로-퐁티의 존재론적 회화론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론, 2004
15. 홍민영, 일상이미지의 감성공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론, 2000
16. 질 들뢰즈, 김상환 옮김, 차이와 반복, 민음사, 2004
17. 마이클 김상운·양창렬 옮김, 하트, 들뢰즈 사상의 진화, 갈무리, 2004
18. 짐중권, 진중권의 현대미술 강의, 아트북스, 2003
19. 신병운, 경계 없는 형태와 공간을 향하여, 스페이스타임, 2002